

가정안전과 생활안전

이 재 원 우리 협회 전문위원

1. 각종질병 및 사망재해 현황

- 여러분, 아파보셨습니까. 다쳐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사고 등으로 많은 고통과 시달림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러한 고달픔 속에서 70 이상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어떻게 보면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 40-50세에서,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은 의학의 발달도 있겠지만 우리의 안전생활 태도의 향상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암사망율은 세계 1위, 교통사망 및 산업재해는 세계 3위 등 상위권에 있고 보면, 국민소득 10,000불 의자칭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질병 및 사망재해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데 다같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본다.
- '94 기준 우리나라 총사망자수는 244,669명으로 이 중 재해사망이 전체의 5%인 13,392명이고 질병사망은 전체의 95%인 230,677명에 달한다. 재해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이 79%인 10,448명이고 산업재해사망이 16%인 2,064명으로, 이 중 교통 및

산업재해 사망이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건강관리 소홀과 불안정한 행동이 주원인이며 특히 재해사망원인은 가정안전 및 생활안전의 부재, 즉 안전의식부족에서 오는 것이므로 가정안전 및 생활안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각종 질병 및 사망재해 현황

- 연간 총사망자수('94) : 244,069명(100%)
 - 재해사망 : 13,392(5%)
 - 질병사망 : 230,677(95%)
- 재해사망('85-'94평균) : 13,198명
 - 교통사고 : 10,448(79%)
 - 산업재해 : 2,064(16%)
 - 화재 : 426(3%)
 - 풍수해 : 260(2%)
- 각종 질병사망('94) : 230,677
(5대 사인 순위)
 - 암 : 49,032(34%)
 - 뇌혈관질환 : 36,718(26%)

- 불의의 사고 : 26,639(19%)
- 심장질환 : 19,138(13%)
- 만성간질환 : 11,540(8%)

2. 가정안전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 둘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 냉수도 불어서 먹어라.
 - 이는 길도 물어서 가라.
 - 설마가 사람 잡는다.
 - 기왓장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는다.
 우리 조상님들이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조급하고 서둘고 차근차근하지 못하며, 덩벙대고 대충대충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근자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은 모두 서둘고, 대충대충한 설계시공, 유지관리의 소산들로서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독일의 석학 에빙하우스의 “인간의 망각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끔찍한 사고현상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우리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에 꿀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때의 참혹한 참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을 해롭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 아니 나나 우리 가족이 언제 그러한 끔찍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잊어보려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저 앞에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주변에서 놀도록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도록 주의 한 번 주지 않은 어른들이 있음으로써, 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 정신이 없어 끔찍한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그 책임이 아이들에게 있는지, 어른들에게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보자. 말할 것도 없이 어른들의 책임인데도 어른들 스스로가 이러한 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폭발 및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후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문화추진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안전, 학교안전 등 생활안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평가하여 보자.
- 우리는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다치고 아파서 집에서 약을 바르고, 먹고, 조심하면서 병원을 찾는다. 웬만한 종합병원을 가보면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환자들이 응급실부터 복적거린다. 이러한 환자들을 우리는 병들고, 다친 환자들로서 당연히 아프니까 병원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란 몸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다. 외상을 입었다든가 오장육부, 눈, 귀, 코, 입 등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다.
- 이러한 사람 몸의 이상은 외부적,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이러한 조건의 제거로써 우리 몸의 아픔과 고통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외상을 입지 않도록(미끄러

지거나,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못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거나, 연장의 잘못으로 다치지 않도록) 하고, 과식하거나 부식된 음식을 먹거나, 오염된 물·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소음·진동 제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몸의 이상을 예방하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안전이란 용어를 빌리면 우리 몸은 불안전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몸의 불안전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매월 4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안전점검의 날”이다. 안전문화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안전에 저해되는 사고방식, 잘못된 만행을 하나씩 제거하여 우리의 잘못된 안전의식을 바로 잡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안전교육, 즉 가정안전으로부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가정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넘어짐과 미끄러짐, 찰림과 베임, 화상, 추락, 중독 및 질식, 감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는 가족은 어린이, 주부, 노약자 순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가정안전사고 사례

- '96.12.1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seminar에서 발표한 “가정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문화 조성방안” 발표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가정안전의 심각성, 무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사고내용

- 넘어짐과 미끄러짐 : 42.4%로 가장 빈번
- 화상 : 30.3%
- 추락 : 19.6%
- 중독질식 : 5.3%
- 감전 : 5.0%

② 사고위치

- 부엌 및 주방 : 34.4% 로 가장 빈번
- 거실마루 : 16.5%
- 마당,아파트복도 : 12%

③ 사고가족

- 자녀 : 54.3%(6세 미만 50.7%)로 가장 높음
- 주부 : 41.7%

④ 사고경위

- 놀이,운동,여가활동 : 38.4% 로 높음
- 식사준비 : 34.4%

⑤ 사고원인으로는

- 본인의 실수, 부주의 : 78.0% 에 달함

⑥ 사고 후 조치로는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사고당사자가 미취학아동 등 자녀 및 주부로 편중되어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안전의식, 행동이 중요하다.
 - 안전사고원인이 대부분 안전수칙 불이행이나 부주의때문이므로 안전수칙 이행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즉 가정안전은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스스로

의 안전을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 국가안전으로의 기초안전이 되므로 우리 어른들의 안전수칙 준수 등 솔선수범 자세와 가정안전의 주체자로서 가정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생활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안전점검 주요항목

가정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주요항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추락재해예방

- 옥상, 배란다 등에 추락방지용 난간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는지
-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상태, 파손유무 및 세대대 간격의 적합성 여부
- 계단입구 등 높은 장소에서의 추락 가능성 여부

② 넘어짐 재해예방

- 방이나 마루, 마당에 기름, 물 등이 묻어 있어 넘어질 위험 유무
- 방이나 마루, 마당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의 방치 유무

③ 전기화상, 쇼크 등 재해예방

- 어린이들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위치한 콘센트에 덮개 설치 유무
- 각종 전열기구(다리미, 밥솥, 전자렌지 등)의 표준규격제품 미사용으로 인한 과열 유무
- 1개의 콘센트에 전기, 전열기구의 문어발식 접속 여부
- 각종 전기, 전열기구 코드선의 손상 또는 피복 파손 여부
- 임베션의 연결접속 불량 또는 전선배선 불량 여부

④ 화재예방

- 위험성이 있는 인화물질 등의 방치 유무
- 동절기에 난로 주유시 안전조치는 확실한가
- 덜 탄 연탄불 소화 및 방치 유무
- 유류, 연탄 및 가스보일러 등의 이상시 비전문가에 의한 작동 유무
- 가정용 소화기 비치, 위치 확인 및 소화전 작동요령 숙지 여부

⑤ 가스폭발예방

- 가스밸브 및 코크의 점검요령 및 정상작동 유무
- 가스용기의 설치위치의 적합성 및 안전캡 부착 유무
- 가스용기의 입력계 정상작동 유무
- 가스렌지의 연결부분 누설 유무 확인
- 가스공급 호스 파손 또는 손상 유무
- 가스폭발의 위험성 및 폭발방지에 관한 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⑥ 가스중독예방

- 연탄 아궁이 및 연통의 균열 손상 유무
- 가스감지기의 정상작동 유무
- 환기장치의 적합성 설치 및 환기상태

⑦ 기타 재해예방

-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물질(성냥, 동전, 라이터, 칼, 약품 등) 방치 유무
- 날카로운 못이나 위험물체 또는 물질의 방치 유무
- 선풍기 등에 안전망의 설치 유무
-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의 방치 유무

-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 유무
- 승강기의 탑승, 조작요령 및 비상시 응급 조치 요령 숙지 유무

3. 교통안전

◎ 교통사고 현황('95 기준)

- 자동차수 및 증가율 : 800만대 (22.8% 증가)
- 사고사망자수 및 증가율('94) : 10,086명 (7.1% 증가)
('84-'94 10년 실적) = 266,107명
- 경제적 손실 : 5조 8,000억원(G.D.P의 2.5%)

◎ 교통안전 사고원인

- 현대문명의 이기인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는 인류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으면서 교통사고라는 고통을 주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은,

- 인적 요인 - 운전자 및 보행자의 판단착오
→ 운전자 및 보행자의 태도 및 행동 등
- 차량요인 - 자연조건, 사회적 여건, 근로 여건, 교통여건
→ 도로조건, 안전시설, 자동차 성능 등
- 직접적 요인 - 운전자 법규 위반
- 피해자 과실

교통안전의식 결여가 근본적 원인

※ MBC 「숨은 양심을 찾아서」

- 교통질서 ZERO
 - 한국인 85% 이상 법규 비준수
 - 일본인 85% 이상 법규 준수

◎ 교통안전문화 문제점

- ① 급행심리 - allegro 문화
- ② 책임회피현상 - 운명, 팔자타령 - 하늘에 책임전가
- ③ 자제력 상실 - 유교윤리 약화, 개인주의, 충동억제능력 약화
- ④ 필법의식 부족 - 요령주의
- ⑤ 황금만능주의 - 시간은 돈이다 - 생명보다 돈 우선 현상
- ⑥ 신고, 고발정신의 약화 - 공동의식 부족
- ⑦ 허세의 만연 - 과시욕으로 자동차 증가
- ⑧ 인정과 대면문화 - 인정주의, 대면문화는 교통수요 유발
- ⑨ 공정성의 결여 - 도로, 교통환경적 요인 배려 소홀
- ⑩ 보험제도 불합리 - 보험회사 의존 및 죄의식 부족

※ 교통위반 순위 및 벌칙

- ① 과속(승용차기준 벌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② 중앙선침범(승용차기준 벌칙금 60,000원, 벌점 30점)
- ③ 안전거리 미확보(승용차기준 벌칙금 40,000원, 벌점 10점)
- ④ 무면허운전(2년 징역)
- ⑤ 교차로 통행방법(벌금 40,000원)

※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 심각한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양보 } 문제

◎ 교통안전문화의 실현방안

- ① 교통안전교육의 생활화
교통안전문화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관심과 배려, 생활화 되는 가정안전교육
- 체험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교육
- 기능적 교육에서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인격적 사회교육
- 교통안전교육
 - 운전자 교육 - 운전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 교육
 - 10, 20대 운전자 교육 강화
 - 보행자 교육 - 14세 이하 교육 - 교통사고의 8.4%(8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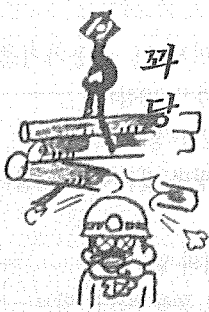
- 60세 이상 교육 - 교통사고의 17.4% (1,758명)
- 청장년 교육 - 법 위반자 강력 단속

② 교통안전문화운동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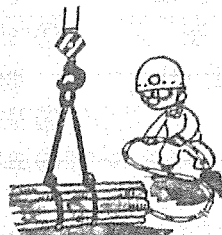
- 윤리와 지성을 대표하는 각계의 지도층 인사 참여 술선자세 보임
- 언론사, 공익단체, 봉사단체들의 참여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냄
- 반상회, 가족회의등을 통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문화 실천방안 전파

만화로 배우는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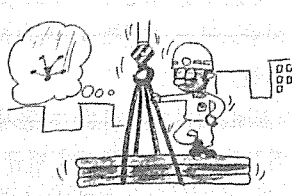
◆ 크레인 작업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물건
밑은 "위험"



긴 물건 등은 로프로
단단히 묶는다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물건
위에는 절대로 타지 마세요